



제목	The Persians: Ancient, Mediaeval and Modern Iran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Yale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0. 11. 30.
저자	Homa Katouzian
출판국가	미국
페이지수	448
ISBN 또는 ISSN	978-0300169324

내용 요약

이 책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부터 아마디네자드까지, 즉 이란인의 기원부터 고대, 이슬람의 도착과 중세, 근현대까지의 정치사 책이자 문화사 책이다.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상세한 주석과 참고문헌은 전문가들에게도 유익하다. 특히 신정국가의 정도와 구조, 정당에 대한 설명은 현대 이란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란 정치사의 본질과 이론을 정립하려는데 이 책의 의의가 있다.

저자는 이란에 국가와 사회 두 세력이 존재하고, 국가는 절대적이고 독단적인 권력을 추구하면서 사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사회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반란과 혼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자의 성향이 서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순환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이 논리를 적용한 사례는 사파비조의 압바스의 전체적인 통치, 이후 마지막 술탄 후세인 시대의 혼란, 카자르조의 나테르 샤의 독단적 권력 장악, 부패와 혼란, 팔레비조의 절대 권력, 외부세력과 반정부 시위를 통한 호메이니 혁명 등이다. 저자의 논리가 이란사에 적용했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언어와 지역이 다른 여타 중동 국가들에게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몇 가지 부정확한 용법과 지도는 유의해야 한다. ‘정설(orthodox)’이라는 용어는 이슬람교에 부적합하고, ‘부족들의 왕’이라는 용어보다 ‘파당들의 왕’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또 파르티아의 영토에 동부 아라비아가 있고, 사산제국의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반대로 그려야 한다. 디나르(Dinar)를 은화로, 드라크마(drachma)를 금화로 표기하였는데, 이것도 반대이다.